

16. 청소년 비행이 시작되었다

Juvenile Delinquency Begun

20 세기 이전에는 범죄자란 말만 있었지 청소년 비행이란 말은 없었다. 청소년 범죄의 발생은 청소년기 발생의 한 부분이다. 수 천년 동안 생업에 종사하며 결혼한 십대들은 어른으로 간주되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졌다. 그런데 19 세기 말에 서구 문화는 이들 "아이들(children)"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 즉 적어도 예전의 어른들이 져야했던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경 시대 Bible Times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을 때,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졌던 십대 TCK 의 좋은 사례이다. 어느 날 둘만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주인의 아내는 요셉과 성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그녀는 그의 겹옷을 잡아 끌며 함께 침대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는 옷을 붙잡고 있는 그녀를 남겨두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다. 자신이 멸시받았다는 것과 아직 그의 옷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다른 종들을 불러 요셉이 집에서 뛰어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확신할 만한 일을 말했다. 그녀는 요셉이 그녀를 강간하려 했는데 자기가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그녀가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나가느라 옷을 두고 갔다고 (창세기 39 장).

그 남편이 집에 돌아 왔을 때, 그녀는 같은 거짓말을 했다. "우리집에서 일하는 그 히브리인이 와서 나를 강간하려고 했고 내가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급하게 도망치느라 겹옷을 두고 갔나이다." 물론 다른 종들이 그녀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남편은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처넣었다. 소년이 십대가 되면 성인 남자가 되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형법 아래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되었다.

또 다른 예는 죄수로 잡혀 가서 TCK 가 된 여호야킨의 예이다. 여호야킨은 18 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 왕으로 다스린지 3 개월만에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야킨과 많은 가족들을 정치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가 십대였던 것이 아무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그는 그 시대의 다른 십대들과 마찬가지로 성인 취급을 받은 것이다.

과거의 미국 USA Years Ago

수천년 동안 법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아이와 어른을 구별했다. 800년 전 영국의

보통법 아래에서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예 범죄를 구성하지 못했고,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그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었다든가, 나쁜 짓을 할 의도가 있었다든가, 그들의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았다. 14세 이상의 사람은 성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많은 미국의 법이 영국의 보통법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도 물론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아이들(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법적으로만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않는 것 같다. 그래서 누군가가 청소년들을 다른 성인들과 구별해서 다루는 시스템, 처벌보다는 치료(갱생)에 역점을 두는 시스템을 생각해냈다. 그 시스템의 논리는 만일 십대에 갱생 치료가 행해진다면 범죄가 곧 근절될 거라는 것이었다.

청소년 비행이라는 말은 1899년 일리노이주 입법부의 청소년 법원 법안의 구절에서 공식적으로 생겨났다. 그 법안에는 “비행 청소년”은 “일리노이 주, 도시, 마을의 법을 어긴 16세 미만의 아이”로 정의되었다. 물론 그 당시(1899)에 16세는 사춘기를 막 지난 소년들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아이들과 성인들에 대해 별개의 소송 절차가 생겨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춘기에 해당하는 나이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청소년기의 다른 측면들로 인해 청소년 비행에 적용되는 최대 연령은 늘어났다.

현재의 미국 USA Today

다른 주들도 곧 따라했고 사람들은 청소년 사법 시스템을 대단한 진보로 여겼다. 청소년 법정들도 개혁되었다. 처벌하는 대신 사기를 복돋아 주고, 퇴보시키는 대신 개발시켰고, 범죄자로 망가뜨리기 보다 가치있는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지난 세기에 이루어진 몇 가지 진보의 사례가 여기 있다.

- 1905년. 펜실베이니아주의 브라운 대법관이 청소년법을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을 때, 이 판결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 그의 말은 거의 종교적으로 들렸다. 그 법으로 “펜실베이니아주가 일정 나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떠맡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 1968년. 획일적인 청소년 법정법(Uniform Juvenile Court Act)이 작성되었고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법에 의하면 “아동(child)”은 “(1) 18세 미만; 혹은 (2) 18세가 되기 전에 비행을 저지른 21세 미만”의 사람이었다.
- 1980년. 전국 청소년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Youth)는 폭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력)로 체포되는 청소년 수가 모든 범죄의 거의 두배 정도로 치솟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체포된 그룹은 18세였고 2위가 17세, 그 다음이 19세, 그 다음이 16세였다.
- 1981년. 달라스에 사는 14세 데이비드 킬러(David Keeler)는 권총으로 부모를 죽였고 사립 심리치료센터에 보내졌다. 텍사스주 법 아래서 그는 살인죄로 재판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4년 12월 29일, 그의 18세 생일에 센터에서 풀려난 그는 21억 상당의 부모의 저택에 대한 그의 몫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었다.젯

- 2005년, 대법원은 범죄 당시 청소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모든 사형수들의 판결이 종신형으로 변경되었다.

20세기 말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1955년에 청소년 비행 감찰위원회에서 증언했던 알렉산더 와일리 (Alexander Wiley) 상원의원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게으름에 빠져서 도시의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을 볼 때 우리 상식이 도전받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게으름이 범죄일뿐 아니라 그 외 모든 것을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비록 청소년기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할수 없었지만), 많은 주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받도록 허락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청소년기를 인정하는 다른 서방 국가들도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 1994년 11월까지 영국 엘랜드(Elland)에서는 14세 젊은 남자가 그의 집으로부터 1마일 반 안에서 88번 체포되었고 130개의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법은 15세 이하는 누구라도 감금하는 것을 금했었다. 그의 15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지만 1995년 그 법은 바뀌어서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12세 부터 감금하는 것을 허락했다.

갱단들 Gangs

일하지 않기 위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할 일이 없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갱단에 가입한다. 대부분의 큰도시에는 수 천명의 십대들이 가입된, 말그대로 수백 개의 갱단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갱단들은 위에서 말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준다. 이들 갱단들은 때로는 갱단을 시작하기 위해 범죄 활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마약판매로부터 강도질, 조직 범죄에 이르는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갱단들과 그들의 범죄는 대도시 현상이라고 여겨졌으나 그들은 많은 작은 도시들과 심지어 시골 지역에까지 퍼져갔다. 갱 멤버들은 서로를 공격할 뿐 아니라 우연히 그 지역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혔다.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하원에서도 갱 공격이 연방 범죄가 되는 법안을 이제 막 통과시켰다. 승인된 279-144 항의 이 법안은 16세, 17세의 갱 멤버들이 연방법원에서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기소될 수 있게 했으며 모든 폭력 범죄에 대해서 5년형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15년으로 연장했다.

청소년기 제 3 문화 자녀들(TCKs)은 무엇을 할수 있나? What Can Adolescent TCKs Do?

당신은 이 챕터가 왜 이 책에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은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나는 확실히 당신이 비행 청소년이 아닌 줄로 알지만, 크리스천들은 단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 책의 5장에서 본 것처럼,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단지 법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능력을 갖게 된다.

제3문화자녀들(TCKs)로서 당신은 문화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의 관점에 따라 문화가 다르다. 예를 들어, 매춘부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성병만 없다면, 어떤 나라들에서는 매춘이 합법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춘이 범죄이기 때문에 성매매자들은 잡혀가서 감옥에서 얼마를 보내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이 합법적일지라도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도 문화가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흡연이 합법적이고 어느 장소에서나 허용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흡연이 합법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특정 흡연실로 가야 하거나 어떤 건물에서는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된다 하더라도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혹은 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도 문화가 또 다를 수 있다.

어떤 행위의 합법성과 허용성이 문화마다 다르듯, 그것은 같은 문화 안에서도 시대마다 다르다. 1973년에 심리학자 칼 메닝저(Karl Menninger)는 그의 책 *“죄가 된 것은 무엇이든(Whatever Became of Sin)”*라는 책에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다. 메닝저 박사는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서 죄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교회에서 다루어지는) 죄들이 보통 (법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범죄들이 되거나, (보건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질병들이 되었고 이제는 그저 남과 다른 생활방식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변화들이 지나간 2세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성애는 처음에는 죄로 여겨졌었고 동성애자들은 기도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동성애는 범죄가 되어야 하고 동성애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고 동성애자들은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미심리학회(AMA)는 그것이 병이 아니고 단지 다른 종류의 생활방식(life style)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처음에는 (술취함의) 죄였다가, 나중엔 (음주 운전 같은) 죄가 되었다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되었고 이제 우리 문화 안에 사는 많은 십대들에겐 평범한 생활방식이 되었다.

사람들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십대를 포함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6백만명의) 유대인 학살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일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되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사람과 미국 흑인을 노예로 팔고 사는 일이 200년 전 미국에서는 합법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들의 문화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십대 청소년들을 포함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하시고 무엇을 그르다고 하시는지 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그 나라 문화에 의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의 일부분으로 청소년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범죄가 있다. 미국에서 일년에 거의 25만명이 야간통행 금지 위반, 공공장소 불법 배회, 가출등으로 체포되는데 이런 위반 사항으로 체포되는 사람 모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이런 위반 사항들이 불법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모두 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자정이 지나서도 집 밖에 있는 일이 비도덕적이 아닌 문화에 살고 있는 것이다.

† 이 브로서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

